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광산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 개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지난 1월 2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광산업체 대표, 연구 및 지원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핵심전략산업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새정부의 광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간담회에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의 광집적화, 첨단산업과학단지의 경제특구 지정, 평동산단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확대, 2012년 광주국제광박람회(인정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된 '광주 광산업 육성 간담회'에서 광산업체 대표, 연구 및 지원기관 대표들은 "광주지역의 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오는 2004년부터 시작되는 광산업육성 2단계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노 당선자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광주과학기술원 1층에 마련한 광산업제품 홍보전시관에 전시된 광제품들을 둘러보며 광제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광주를 방문,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광산업체 대표, 연구 및 지원기관 대표들과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광산업 육성 간담회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최상삼 광기술원장으로 부터 광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2년 광주국제광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홍보관을 둘러보고 광산업의 경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하고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광주지역 16개 회원 사로부터 23개 품목을 기증받아 홍보전시관을 구성했다.

